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소외된 이웃 위해 100만원 기탁

이형동 기자 | 승인 2025.10.01 13:58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가 지난달 29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